



© StoryRadius

베네수엘라 교회들 기도·평정·희망 호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베네수엘라 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Council of Venezuela, CEV)가 최근 국가 상황과 관련해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CEV는 집행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국가적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영적 연대를 나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와 시민들에게 기도와 연대를 전한다”고 전하며,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에서 CEV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단순한 정치·사회적 위기로만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우리는 열방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는 혼란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영적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승연 기자



AI 대전환의 급속한 물결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다. 2026년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네비게이션을 켜야 한다. © pixabay.com /StockSnap

2026년 네비게이션

2025년이 역사 속으로 저물고, 2026년을 맞았다.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는다.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25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 전역에서 'America 250'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11월 3일에는 미국 중간선거 및 주지사 선거가 있다. 기독교 가치관(낙태, 동성애, 종교의 자유, 공립학교 커리큘럼 등)과 직결된 주민 발의안들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2월 18일 시작된다. 부활절은 4월 5일(주일)이다.

제56대 남가주교협(회장 김은목 목사)은 1월 21일(수) 신년 시무예배를 드린다.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1월 12일(월)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1903년,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긴다. 제11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KWMC)가 5월 18일-21일(월-목) 뉴욕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주최로 “예수, 열방

의 빛 (Jesus, The Light of the Nations)”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1세대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 및 다음 세대 리더십의 부재를 고민중인 선교계에 젊은 리더십을 수혈하기 위해 '문화 예술'과 '참여형 세션'을 전면에 내세운다. 한인세계선교대회 이후에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인세계선교사회 주니어 컨퍼런스(KWMF Junior Conference)가 이어져 열린다. 아시아계·한인 리더십 컨퍼런스(Asi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 2026)가 “Rei-

maging Family”라는 주제로 SOLA네트워크 주최로 캘리포니아 브레아의 Living Hope Community Church에서 개최된다. 월드컵이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막해, 7월 19일 뉴저지 메트라이프에서 막을 내린다. 멕시코시티, 고달라하라, 토론토, LA, SF, NY, 보스턴, 밴쿠버, 휴스턴, 댈러스, 필라델피아, 몬테레이, 애틀랜타, 시애틀,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밴쿠버, 몬테레이 등 3개국 16개 도시에서 48개국이 참가해 104개의 경기를 펼친다. 주디 한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부도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Title IV와 State Grant 지원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방안을 제형해드립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다양성에서 탁월함으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SINCE 1977
2026년 봄학기 입학 설명회 www.cpu.edu
Zoom ID: 829.947.6668 ✨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봄학기 입학설명회 일정

- ▶ 26년 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전체과정 (선교학 박사과정 제외)
- ▶ 26년 1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M.Div., ESPI(English)
- ▶ 26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전체과정 (선교학 박사과정 제외)

✓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 각종 장학금과 Title IV 지원
✓ Title IV와 State Grant 지원
Title IV와 State Grant는 학생들의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필요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들은 신분과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학부학생의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Grant)입니다.

학사과정
• 한국어과정 - 가정상담학, 교육학, 글로벌경영학, 신학
• English -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Athletics
Education, Family Counseling
• Chinese - Theology

석사과정
• 한국어과정 - 목회학, 목회학 전문원목과정(Chaplaincy), 목회학 전문교정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교정학
• English -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Chinese - Master of Divinity

박사과정
• 목회학(D.Min.) - 설교학 및 회중 양육 중점
• 선교학(D.I.C.S.)
• 선교학 철학(Ph.D.C.S.)

자격증과정
• English Speaking Pastoral Internship
- ESPI (영어 인턴 사역자 양성과정)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나침반교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항해를 시작하다

**민경엽 목사 27년 동안 섬겨
나침반 교회 인도자는 하나님
신임 이종천 목사 “참으로 연
약한 사람”**

2025년 12월 28일(주일) 오후 4시, 브레아 지역 나침반교회에서 민경엽 목사의 은퇴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민 목사는 지난 27년간 교회와 지역사회, 교계 연합을 위해 헌신하며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실천해 온 목회 사역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예배는 1부 은퇴 감사예배와 2부 이·취임 및 은퇴 감사 행사로 진행됐다.

예배는 PCA 한인서남 OC노회 서기 안효성 목사가 인도했다. 그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이양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입니다”라며 말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님이 해오신 사역도, 앞으로 이종천 목사님이 감당할 사역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침반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는 OC교협 증경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주님께 상급 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민경엽 목사가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사역을 통해 연합 운동에 힘써 온



나침반교회가 담임목사 이취임식 및 은퇴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점을 증거하며, 세상적 보상과 하늘의 상급을 대조했다. 이어 나침반교회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세 가지를 나누었다.

그는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민경엽 목사님 내외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확신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급은 순종에 따라 주어진다”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늘 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되길 격려했다. 끝으로 “나침반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며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 지역사회에 더욱 아름다운 동

역이 이루어지길 축복한다”고 축원했다.

2부 이·취임 및 은퇴 감사 행사

민경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우종복 시무장로와 강정희(김정희) 시무권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PCA 한인서남 OC노회장 이영찬 목사가 민경엽 목사를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로 추대·공포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축하동영상 상영 후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성우 목사(미국 합신노회 노회장·크리스천헤럴드 대표)의 축사, 송황의 장로의 송사, 담임목사 취임패 증정, 박내원 장로의 환영사, 이영찬 목사의 권면, 김상선 목사(PCA

한인서남노회 노회장) 축사, 김기동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요 축사 요약

이재환 선교사는 영국 올 소울즈 교회에서 27세에 목회를 시작해 83세에 은퇴한 존 스토티 목사를 예로 들며, “1999년 민 목사님 취임 때 축사했던 제가 은퇴 때도 축사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이종천 담임목사를 통해 새 비전을 품고 브레아 지역 최고의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는 민경엽 목사를 “연합 운동의 진정한 나침반”으로 평가했다.

PCA 교단, 미주 합신 노회·동문화, 미주 한인교회 연합, 미주성시화운동본부, OC교협 회장·이사장 등으로 섬기며 연합 운동에 앞장섰음을 치하했다.

송황의 장로(교회 대표 송사)는 “1999년 9월 부임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오셨다. 기쁨의 날과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놓지 않으셨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민 목사는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를 인용하며 답사를 전했다.

“대추 한 알이 익는 데에도 태풍과 천둥, 무서리와 뱀벌이 필요하듯,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동역과 격려가 있었기에 27년 목회가 가능했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했다.

이어 “이종천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천 목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며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충성되게 섬기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기동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조셉 리 기자

크렌셔장로교회, LA장로교회로 새 출발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지난해 말 크렌셔 블러바드 소재지를 떠나, 영옥 김 아카데미(Young Oak Kim Academy) 맞은편 샤토 플레이스(Chateau Place)로 이전했다. 이 교회는 교회 명칭을 LA장로교회로 변경하며, 1월 4일 주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성도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한현종 목사는 학개서 2장 9절을 본문으로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학개서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임을 강조하며, 성전 건축이 갖는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한 목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이를 방치하고 현실에만 몰두했던 시대적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허름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꾸려가려 했다”며, 그 결과가 학개서 1장 5~6절에 기록된 공허함과 결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하지만, 그만큼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 한 목사는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며,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권



크렌셔장로교회가 장소를 사토길로 이전하고, 교회 이름을 LA장로교회로 변경했다. © 기독교일보

면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라는 점이다. 그는 성도가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가야 함에도, 실망과 낙심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의 성전’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도전했다.

둘째로 그는 학개서에 등장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설명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했다.

특히 학개서에 반복되는 “스스로

군세게 할지어다”에서 ‘군세게 하다’의 히브리어 ‘하자크(달라붙다)’의 의미로 풀어내며,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능성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며 “2026년 한 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개인과 가정, 교회가 새롭게 흔들리고 회복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LA장로교회는 2022년 8월 28일 창립예배를 드리며 세워졌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일예배(한국어/EM)를 드리며, 토요일 오전 6시에는 토요 새벽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주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407-1600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회장 장 병 우
Alex Byongwoo Chang

Tel. (213)384-6919

www.puaccla.com

Email: suekim357@yahoo.com

3660 Wilshire Blvd. #406 Los Angeles, CA 90010



대한민국 대통령직속 헌법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os Angeles Chapter

미주평안교회 박병열 목사, “AI시대에도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의 세가지 중요한 사명
약속, 임승진 목사(3대 담임)
선교목사로 추대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임·취
임예배가 12월 28일 오전 11시 미
주평안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제4대 담임목사 임승진 목사가 이임하고, 제5대 담임목사로 박병열 목사가 취임했다.

예배는 임승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회소식과 신앙고백, 찬양과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혜성 목사(ATI 학장)가 '목양의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라며, “담임목회자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어린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회가 걸어온 말씀 중심의 전통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란다. 성도들이 이를 함께 서포트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이취임 예식은 송정명 원로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이 임 인사말씀은 임승진 목사가 전했다으며, 선교사 축대패 전달과 꽃다발 증정 순서가 마련됐다.

신임 담임목사 안수에는 송정명 목사, 박해성 목사, 민종기 목사, 이삼량 장로 등이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치리권 이양과 취임패 전달이 이어졌고, 특송은 김영옥 권사와 염미정 권사가 맡았다.

축사는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고신원 목사(한국 신월동교회), 이혜진 목사(애틀란타 벨엘교회), 오정녀 선교사(아프리카 케냐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권민은 민종기 목사(KCM USA 이사장)가 맡았고 격려사는 Bernie Hong 목사(미주 평안교회 영어부 담당)가 영상으로 전했다.

축사자들은 “박병열 목사가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목회를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하나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임·취임예배가 거행됐다. ©미주평안교회

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모여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역사가 되어 결국 '히즈 스토리', 곧 주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병열 목사와 사모를 통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이야기가 써 내려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는 권면에서 “미주
평안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
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
기를 바란다”며 “이 교회 위에 희
년의 기쁨과 잔치가 임하기를 바
라며, 건강한 목회는 목회자 혼자
만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의 기도
와 헌신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박병열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유년주일학교 대표가 꽃다발을 증정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폐회찬송 '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를 함께 부른 뒤 박병열 담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병열 목사는 “오직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며,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세가지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다. 담임 목회자의 중요 역할은 목양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함께 웃고 우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노력하겠다. 그리고 말 씀을 깊이 묵상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꿀’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목회에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앞에 서약하면서, 평안교회가 걸어온 지난 50여 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맨 기자

미주한인의 날, 한인 이민의 역사와 미래를 잇다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1월 12일(월) 오후 4시, 로
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미주한
인재단 LA(KAFLA)이 주최한다.

1903년, 낯선 땅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미주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올해로 123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감사예배로 시작하여, 한인 이민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강연, 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선포식, 축하 만찬과 기념



음악회 등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인 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미주한인재단 LA는 “123년 전 이민 선조들의 믿음과 용기가 오늘의 미주 한인 사회를 세웠다”며 ‘이번 기념 행사가 한인으로서의

자극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인 동포는 물론,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제123주년 미주한인의날기념 행사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4시
장소: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1면 기사 <2026년 네비게이션>에
이어서 LA에서는 6월 12일, 15일,
18일, 21일, 25일, 28일, 7월 2일,
10일에 경기가 열린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가 5/5-5/8(화-금) 주제 "에
벤에셀의 하나님"(삼상 7:1-12),
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에서 열린다.

해외한인장로회(KPC, 구 KPCA)
총회가 5/12-14(화-목) 퀸즈한인
교회(김바나바 목사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에서 열린다.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

odist Church) 교단총회 8/30 일~9/5(주일-토), 남아프리카공 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샌트 컨벤션 센터(Sandton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다. 총회의 주제는 “거룩의 아름다움: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부르심”이며 글로벌감리교회 역사상 최초

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교
단총회이다.

제45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6/9-12(화-금) Church at
the CrossChurch at the Cross
(Orlando, FL)에서 개최된다.

미국장로교(PCUSA)는 6/22-7/2 위스콘주 밀워키에서 제 227

회 총회를 개최한다.

제47회 미주성결교회 (KEHC) 총회가 "성결인이여, 성결의 영으로 일어나라!"(롬 1:4)라는 주제로 4/13-16(월-목) 웨스턴 샌디에이고 베이뷰(Westin San Diego Bay-view, 400 West Broadway, San Diego, CA 92101)에서 개최된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 장 **최규남 박사**

2026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년 1월 31일 까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학위과정 안내

학사 Bachelor of Arts

- 신 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사 Doctoral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입학 절차

ADMISSIONS PROCESS

1. 원서접수
웹사이트에서 APPLY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입학 문의

ADMISSIONS CONTACT



☎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www.gm.edu

학생 혜택

STUDENT BENEFITS

- 유학생 1-20 장학금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 통신(Online)수업을 통한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교육 인가 기관

ACCREDITING AGENCY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미주복음방송 인재 모집

미주복음방송(KGBC)이 2026년 을 맞아 방송선교 사역을 함께 감 당할 동역자를 공개 채용한다.

미주복음방송은 이번 공개채용 을 통해 방송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사명으로 동행할 새로운 동역자를 찾고 있다.

이번 채용은 ▶ 아나운서, ▶ 음 향 엔지니어, ▶ 영상 제작, ▶ 기획·홍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과 파트타임 채용이 함께 진행 된다. 모집 분야별 세부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관련 학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자는 우 대된다. 이중 언어 구사자 또한 우 대 대상이다.

입사지원 접수는 2026년 1월 5 일(월)부터 1월 25일(주일)까지 진행 된다. 지원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www.kgbc.com)에 게시된 공개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 형을 거쳐 입사 전 오리엔테이션 후 최종 입사로 이어진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사진 포함)를 비롯해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 및 신앙고 백서(1페이지 분량), 담임목사 추천서 등이다.

아나운서 지원자는 지정된 스크 림트 녹음 파일을, 영상 제작 지원 자는 제작 영상 링크 또는 포트폴 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am1190@kgbc.com) 을 통해 가능하다.

공인 전문 채플린(CPC) 인증 수여식 개최

차세대 채플린 양성 위한 CPE·CPC 2기생 모집

전문 원목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hap-lains Global Network, APCGN, Dr. James Koo)는 지난 12월 28일(주 일) 오후 3시 30분, 터스틴에서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수료 및 공인 전문 채플린인 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수여식은 병원, 교정시설, 군대, 호스피스, 지역사회 등 다양 한 현장에서 영적 돌봄 사역을 감 당할 수 있도록 채플린들의 전문성 과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 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PCGN 이 주관하는 CPE 및 CPC 인증은 채플린이 갖추어야 할 영적 돌봄의 탁월성, 전문 윤리, 지속적인 형성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음을 증명하 는 공신력 있는 자격이다.

특히 APCGN 는 이번 인증 수



APCGN, CPE 수료 및 공인 전문 채플린(CPC) 인증 수여식.

여식과 더불어 차세대 전문 채플 린 양성을 위한 CPE·CPC 과정 제 2 기생 모집을 하고 있다. 2 기 과 정의 교육과정은 Zoom 온라인으 로 실시간 교육하고 현장 Clinical Hours 는 APVGN 협회와 협력하 는 Clinical Center 현장을 통해서 실제적 돌봄 능력 강화함으로 전 문 채플린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감을 균형 있게 형성하는 교육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PCGN 의 CPE 과정은 실제 사 역 현장에서의 사례 중심 교육과 슈퍼비전, 자기 성찰을 통해 영적 돌봄 역량을 심화시키며, CPC 인 증 과정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채플린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2기 과정은 목 회자, 선교사, 병원·군·교정 사역 종사자 및 영적 돌봄 사역에 소명

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APCGN 협회의 대표인 제임스 구 박사는 “이번 수여식은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훈련을 마친 채플린들을 축복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 라며, “CPE·CPC 2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역자들이 전문성과 영 성을 겸비한 채플린으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CPE 수료자 및 CPC 인증 대상자와 가족 및 관계자들 이 참석했으며, OC와 LA 지역에서 교정사역을 하는 피터 변 채플 린의 격려사와 조언이 있었다.

이 단체에서는 CPE·CPC 제2기 과정을 지원자를 모집한다. 강의는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0분 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문의: info.apcgn@gmail.com, http://apcgn.org, 949-667-0264/ 714-393-4595 (문자 가능)



창대장로교회, 27년째 이어진 성탄 사랑 나눔

샌버나디노 창대장로교회(이춘 준 목사) 사랑 나눔 선교회가 지난 12월 27일(토) 홈리스를 대상으로 사랑의 점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선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 요한 계절 춥고 배고픈 시즌에 27 년간 홈리스사역을 해온 창대장로 교회, 사랑나눔 선교회가 올해도 사

랑을 나눴다. 매해 나눴던 점퍼 외 에 신발, 가방, 모자, 식품품 등 이 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 어 행복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을 알 때까지 계속되길 소망한다” 고 밝혔다.

전화 951) 966-9191 주소: 3630 N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위브릿지 연합 운동, 텍사스로 이어진다

달라스 2026 위브릿지 컨퍼런 스가 오는 26일(월)과 27일(화), 텍사스 플라워마운드교회(최승민 목사)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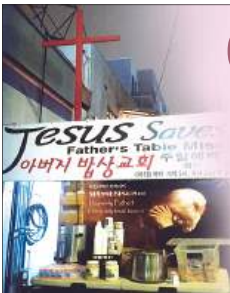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김귀보 목사(큰나무 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플라워마 운드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손해도

목사(달라스 코너스톤교회 담임), 허양희 사모(어스틴 주님의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순회선교사), 강 태광 목사(World Share USA 대 표), 문선영 대표(Wise California 대표), 홍장표 목사(달라스 수정교 회), 이윤영 목사(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이성철 목사(GMC 한 미연회), 최승민 목사(플라워마운 드교회 담임목사) 등이 강사로 섬

긴다. 이번 행사는 달라스 교회 협의회, 휴스턴 기독교교회협의 회, 샌안토니오 교회협의회, 어스 틴 교역자협의회, 기독교일보가 공 동 주최하며, ING(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한다. 원하트미니스트리가 기획을 맡았 고, BTS 솔라와 TCN 텍사스 크리 스티언 뉴스가 후원한다. 등록 마감 은 1월 19일(월)까지이며, 등록비



는 무료다.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GOSPEL CENTERED LIFE

conference

ANC 창립 30주년 기념
1996 ★★★★★ 2026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속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Jan. 24, 2026 / ANC 온누리교회 본당
8:00am-4:30pm / 점심 제공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ospel-Centered Life Conference)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있다면, 콘퍼런스에 등록하세요!
문의: ANC 온누리교회 (818-834-7000) /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내과 내분비 통합 진료 전문의
1월 1일 진료시작

환영합니다!

이현주

- HYUNJU LEE, MD
- 내과 · 내분비학 | INTERNAL MEDICINE
ENDOCRINOLOGY



내과



- 고혈압 진료 및 혈압 관리
-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관리
- 심장병 · 뇌졸중 예방 관리
- 만성질환 종합 관리
- 각종 예방 접종

내분비학



- 당뇨병 진료 및 혈당 관리
- 갑상선 질환 (기능 항진 · 저하)
-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 호르몬 불균형 관리
- 대사증후군 진단 및 치료
- 노화 관련 호르몬 변화 관리 등등

이현주 MD 개원식

선착순 250명에게
당일 빛은 떡과 푸짐한 선물 가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짜 2026년 1월 14일 (수)
시간 9:30 AM
장소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 (714) 583-8569
- 8:30 AM - 5:30 PM (M-F)



한인 기사
무료 라이드 서비스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발급



남가주 최다
입원치료 가능



문화 생활
혜택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2026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5월 뉴욕 개최

현장 선교사·선교사 자녀 600여 명 참여 예정... 세대 잇는 선교의 장 마련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퀸즈한인교회에서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예수, 열방의 빛’(Jesus, The Light of the Nations·이사야 49장 6절)을 주제로,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과 다음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동시대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 선교사 약 400명과 선교사 자녀(MK)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WMC 측은 대회를 통해 선교 현장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세대 간 단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선교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 소통형 대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흘간 ‘빛’의 여정 따라 구성된 대회 프로그램

대회는 나흘 동안 ‘빛’을 중심 키워드로 한 단계적 주제로 운영된다. 첫째 날은 ‘빛 오시다’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빛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선교적 부르심과 선교사의 정체성을 다루며, 셋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첫날 모습.

째 날은 ‘빛이 그리다’를 중심으로 동시대 선교 전략과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살핀다. 마지막 날은 ‘빛을 전하다’를 주제로 세대 계승과 파송, 미래 선교를 향한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KWMC는 이러한 주제 구성을 통해 선교의 신학적 토대와 현장 전략, 그리고 다음세대 선교로 이어지는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특히 프로그램 커미티, 차세대 선교사 모임, 캠퍼스 사역팀 등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사역 영역을 넘나드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트·기술·도시선교 등 12개 영역별 모임 운영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는 선교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영역별 모임도 운영된다. 캠퍼스 선교, 도시 속 열방 선교(다문화·이주민 사역), 아트 인 미션(Art in Mission), 기술과 선교(AI·온라인·미디어), 교육, 비즈니스와 선교,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미전도 종족 중심의 전방 개척 선교, 통일 선교, 난민 선교, 멤버 케어, 다음세대 리더십 등 총 12개 주제가 마련됐다.

KWMC 측은 각 영역별 모임을

통해 선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과 선교를 접목한 ‘아트 인 미션’과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을 다루는 ‘기술과 선교’ 영역은 변화하는 시대 속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대회 이후 주니어 컨퍼런스 개최 다음세대 리더십 계승 초점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인세계선교사회 주니어 컨퍼런스(KWMF Junior Conference)가 이어서 열린다. 이 행사는 선교 현장의 허리 세대인 30·40대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를 중심으로, 다음세대 리더십을 격려하고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니어 컨퍼런스 참가 대상은 1976년 이후 출생한 현장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약 200명이다. 참가자들은 뉴욕 지역 교회에 교회당 2명씩 입양돼 대회 기간 동안 교제하며, 대회 이후에는 입양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교 현장과 지역 교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WMC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선교 공동체 되길 기대”

KWMF 회장 송상천 선교사는 “이번 대회가 분열된 세대를 넘어 하나로 연결되고,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1차 등록을 마감하며, 3월 31일까지 2차 등록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KWM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준 기자

김균진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부활은 하나님 승리”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김균진 박사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세계 정세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AI가 새로운 기술혁명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인간 세계는 여전히 내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암울함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성이 들리고 테러와 독재와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어떤 국제적 과장을 일으킬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김균진 박사

야당의 계속되는 투쟁,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부패,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좌절, 환율·물가 상승, 중소기업의 고충과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 개신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 보기가 어렵고, 남아 있는 청년들의 눈에서도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기 어렵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

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설교를 듣기 어렵고, 현실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설교가 대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옥처럼 되어버린 북한의 현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굶주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라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한 ‘대파멸 중심의 종말신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통속적 종말신앙은 철저히 반기

독교적이며 패배주의적인 것”이라며 “만일 대파멸이 세계의 마지막이라면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대해 승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파멸과 죽음,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뜻한다”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과 정의, 생명의 힘이 세계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삼일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믿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이 땅에 충성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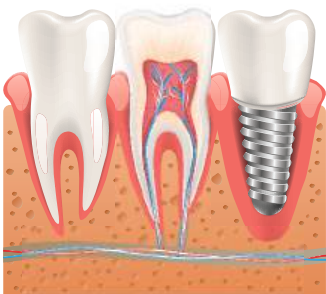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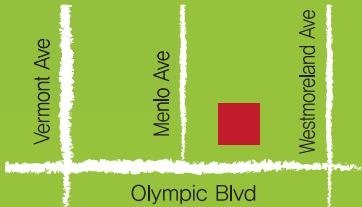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MG는 올해도 당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2026 신년 인터뷰] “복음으로 진검승부해야 할 때” 류응렬 목사

신학은 책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30~40대가 다시 교회로 향하는 이유

2026년 신년을 맞아 미주 기독교일보는 미주 주요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세대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민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신년 인터뷰는 말씀의 본질, 다음 세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 교회와의 연대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는 미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류응렬 목사를 만났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개혁신학 위에 세워진 말씀 중심 교회로, 예배와 훈련,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균형 있게 이어왔다. 특히 류 목사는 종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설교를 가르친 교수 출신 목회자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 신학,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강조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30~40대 성도 비중이 높아지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 속에 있다. 류 목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 교회의 희망을 강조하는 한편, 이민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 말씀 중심 목회의 실제적 열매, 다음 세대 사역의 구조적 전환, 그리고 2026년을 향한 교회의 방향과 비전들을 차분히 짚었다. 다음은 류응렬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 또한 크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 현장을 2023년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기로 방문을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결단해서 갔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 있었고 박사 과정 수업을 인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갈 때까지 끝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현장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느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갈 때까지 이게 끝이 안 나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목회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장면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

을 보셨는지, 당시 분위기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2월 2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날일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 줄이 정말 길었고, 밖에서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 이 부흥의 전달자(Carrier of this revival)가 돼서 나가라”는 선포가 있었고 공식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뭔가 강렬하고 특별한 현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히려 현상은 차분하고 조용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도 “예수 이름,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같은 고백이었고, 흔히 말하는 전문 찬양팀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흥 교수’로 알려진 분도 만나 인터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당시 CNN, NBC, ABC도 왔던 때라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몸매 앞뒤로 부흥을 열망하는 씨인판을 들고 다니며 복음을 전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부흥을 외쳐

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밟았고,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신약 교수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 학교에 방문교수로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켜라’고 하셔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기도만 하지 말고 씨인판을 메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맨’처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뉴욕으로 가라. 뉴욕의 노숙인을 섬기라. 부흥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2023년 초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홍콩에 5주를 머문 뒤 2월 7일 미국으로 돌아왔고, 2월 8일 뉴욕에서 노숙인을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노숙인들을 보며 절망했는데 하늘을 보니 본인 표현으로 ‘확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예배 이후 11시 무렵 기도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또한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이후의 열매도 확인하려고 다시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부흥이 지나간 뒤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영상팀과 목회자들과 함께 다시 갔습니다. 그때 신학교 총장인 팀 테넌트 박사(Dr. Tim Tennant)를 만났고, 존슨 교수(Dr. Johnson), 림 교수(Dr. Lim)도 만났고, 변화 받은 학생들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부흥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묻자, 약 300명 정도가 부흥 이후 각자의 고향과 나라로 돌아가 이 부흥을 간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다른 나라로도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흥을 우리 안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밖으로 외쳐야 한다’는 흐름도 확인했습니다.

교수님들 가운데 한 분은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신학자였지만 예전처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변화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금식기도’라는 단어는 알아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인데, 한 교수님은 이를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학생들의 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학생은 청년기에 흔히 겪는 성적 충동이나 정욕, 여러 갈망들이 자신을 지배했는데, 부흥 집회

에 거의 매일 참석하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총장님이 부흥의 배경에 대해 ‘학교 내부의 일반 교수나 행정이나, 아시아권 교수들과 목회자들의 새벽기도가 중요한 배경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 반쯤 장소가 없어 유치원 방에서 팀을 만들어 기도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현장을 본 것뿐 아니라 부흥 이후의 모습까지 확인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전반을 놓고 볼 때 “미국 교회의 미래는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신앙고백의 토대입니다. 동시에 실제적인 근거를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주요 교단이 극심한 교인 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는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소개됐고, 저희 교단인 PCA는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또 독립교회(Non-denominational)도 급성장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소하는 교단들의 경우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수용과 같은 흐름을 포함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성장한 교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진리로 그대로 믿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복음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미주 한인교회도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은 미주 한인교회에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민자 수가 줄어들어 고민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복음으로 진검승부할 때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대원 기자 [다음호에 계속]

이용태

내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 터를 닦아온
Dr.이용태의 외길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종합검사 전문

MEDICARE PPO
각종 일반 보험으로
시료입니다

하지정맥류
실핏줄 치료전문

미국 위장내과 간 전문의

미국 내과 전문의

원장 이 용 태 박사
Yong T. Lee M.D.

한국종합의료원

YELLOW CROSS MEDICAL CLINIC, INC.

Tel. (323)731-0681 903 Crenshaw Blvd. #302., Los Angeles, CA 90019 leeyongtae@yahoo.com

수단 남코르도판주서 크리스마스 예배 행렬에 드론 공습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025년 성탄절 아침 수단 남코르도판(South Kordofan) 주에서 수단군(SAF)의 드론 공습으로 최소 11명의 기독교인이 숨지고 다수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교회 건물이 아닌,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던 신자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12월 25일 오전, 남코르도판 주 줄루드(Julud·비암잘드 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지 기독교 변호사는 신자들이 성공회 수단교회(Episcopal Church of Sudan)로 이동하던 중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건물 자체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예배를 향해 행진하던 회중이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1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으며, 18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SPLM-북부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 확대…무장 갈등 속 종교인들 직접 표적화

현지 소식통인 수단트리뷴에 따르면 수단인민해방운동-북부(SPLM-North)와 파운데이션 얼라이언스는 이번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공격이 발생한 비암잘드 지역은 현재 SPLM-북부가 통제하고 있는 곳으로,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남코르도판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드론 공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앞서 11월 29일에도 수단군의 드론 공격이 쿠미(Kumi) 지역의 의료 시설을 타격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2월 5일에는 갈로기(Kalogi) 인근 가디르(Ghadeer) 지역의 유치원이 드론 공격을 받아 5~7세 어린이 10여 명 이상이 숨졌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밝혔다. **내전 장기화 속 기독교인 피해 급증…종교 박해 지표도 악화**

CDI는 수단의 치안 상황은 지난 2023년 4월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간 내전이 발발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단에서는 기독교인 피살, 성폭력 피해, 기독교인 소유 주택과 상업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전쟁의 혼란 속에 고립돼 탈출조차 하지 못한 채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배당이 포격을 받거나 약탈되고, 때로는 교전 세력에 의해 점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보고서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모두가 서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 다수 국가 수단, 정치 불안과 함께 종교 자유 후퇴

수단은 전체 인구의 약 9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약 2.3%에 불과하다. 내전 이전 잠시 진전됐던 종교 자유는 2021년 10월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마르 알바시르 정권 붕괴 이후 과도정부는 배교 처벌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샤리아법 일부를 완화했으나,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강경 통치의 재현을 우려해 왔다.

수단은 오픈도어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국가 5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도 8위보다 상승한 수치로, 종교적 박해 환경이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단은 2021년 한때 박해 순위 13위로 내려가며 6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나,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상위권으로 복귀했다.

국제사회 우려 속 정치적 교착 지속…민간인 피해 농담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CHR)에 따르면 이번 내전으로 수단 전역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고, 1,200만 명 이상이 국내외로 피란을 떠났다. 수단군 지도자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과 신속지원군 수장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는 국제사회에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에서는 민간인과 종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승연 기자

나이지리아, 2025년 전 세계 최다 기독교인 순교 국가

나이지리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를 합한 것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국가로 꼽혔다. 올해에만 희생된 기독교인의 수는 최소 3,000명에서 최대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이처럼 이미 높은 희생자 수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무장 강도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 병력을 두 배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 당일 나이지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기지에 대한 공습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 RI)은 연례 박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릴리즈의 나이지리아 현지 협력자는 “기독교 박해의 증가는 기독교와 서구적 가치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을 바탕으로 한 지하드 단체들의 통제되지 않은 확산과, 정부의 무대응 및 미흡한 치안 대응

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헬 지역 기반의 지하드 세력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면서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을 넘어서는 더 많은 기독교인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2026년에는 희생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릴리즈는 2025년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기독교인 수를 7,000명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의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에는 1만4,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박해 상황도 함께 다뤘다. 릴리즈는 중국의 경우 “현재의 기독교 박해가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종교 자유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점령 하에서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소규모 지하 모임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제한적인 러시아 종교법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만이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점령 지역의 상황은 소련 시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카사데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을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금요일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10:5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후 2:00
오후 7:30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주요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월-금)
토요일새벽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일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FC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잔치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토요일 오전 11:00(목)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새벽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평일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요일새벽예배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마두로 체포’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와 다른 도시들을 폭격한 후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CNN 보도 화면 캡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카라카스에서 진행된 군사 작전 중 생포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를 정의와 영적 해방,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카라카스에서 실시된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체포됐으며 미군의 인명 피해나 장비 손실 없이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을 “최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권이 양상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행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약 및 무기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인물로,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의 수장이며, 미 마약보상프로그램 사상 최고액인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첫 사례였다. 그는 수년간 FARC 등 무장 단체와 연계된 마약 테러 활동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주도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두로는 2024년 7월 28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3선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는 선거 전반에 걸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며 결과의 정당성을 강하게 의심해 왔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자신을 대신해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실제로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번 작전에 대해 강한 지지와 찬사를 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며 마두로 체포를 “믿기 힘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군의 작전에 감사를 표하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사악한 독재자가 사라진 것에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조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번 체포가 라틴 아메리카의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린 것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국제적 영향력에도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복음주의 교회 4,763곳으로 증가



© Unsplash/Henrique Ferreira

스페인 내 복음주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다원주의 관측소(Observatory of Religious Pluralism)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페인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 수는 4,763곳에 달했다.

이번 수치는 개인의 종교 신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종합 통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교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종교적 구성 변화가 신앙 고백 통계보다 등록된 예배 공간의 증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다원주의와 공존 재단(Pluralism and Coexistence Foundation) 산하에서 운영되는 종교다원주의 관측소는 지난 20여 년간 스페인 전역의 소수 종교 예배 공간을 추적·조사해 왔다.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가 보도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는 현재 예배 공간 수 기준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정착된 소수 종교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적으로 5,000곳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카탈루냐가 1,010곳으로 가장 많은 복음주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드리드가 855곳으로 뒤를 이었다. 안달루시아에는 744곳의 복음주의 예배 공간이 있으며, 발렌시아 자치주는 510곳으로 네 번째를 차지했다. 관측소는 스페인 전역에서 소수 종교가 사용하는 예배 공간이 전반적으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2만2,922곳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와 무슬림 예배 공간은 현재 약 2,000곳에 육박하며 종교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스페인의 종교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다원주의와 공존 재단은 최근 ‘2025년 스페인 종교 및 신념 바로미터’를 발표하며, 종교 비소속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2%가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에는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 불가지론자, 무신론자가 포함된다.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에서는 가톨릭이 여전히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인구는 8%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세속화 추세 속에서도 소수 종교들이 점차 가시성을 높이며, 스페인의 종교 환경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스페인 사회학연구센터(Centre for Sociological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종교적 신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스페인이 과거보다 더 세속화되는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더욱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구원의 능력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댄 델젤 목사의 기고글인 ‘믿음의 열매가 구원을 만들어 내는가?’(Does the fruit of faith generate salvation?)를 4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델젤 목사는 네브래스카주 파빌리온에 있는 리더머 루터 교회(Redeemer Lutheran Church in Papillion)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연쇄상구균 인후염(strep throat)은 세균 감염으로, 편도선 부종, 발열과 오한, 삼킴 곤란, 목살, 림프절 압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페니실린은 대부분의 연쇄상구균 인후염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1차 선택 약물이다. 수십 년 동안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A군 연쇄상구균을 확실히 제거한다.”

페니실린의 ‘열매’는 항생제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면서 몸 상태가 호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열매가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페니실린 자체다.



댄 델젤 목사.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 그 자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dunamis)’로, 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성이 자신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CP 기자인 라이언 폴리가 최근 보도했듯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이 거짓 교리는 대단히 인기가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와 정죄 아래에 머물게 한다.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희생적인 죽음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요한복음 3:36).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복음 메시지 자체다. 만일 자신의 고귀한 행위가 구원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매는 결코, 다시 말해 결코, 누구의 구원의 원인이나 근원이 되지 않는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결코 벌어서 얻을 수 없다(로마서 6:23 참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값없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다.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물론교 교리다. 물론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니파이후서 25:23). 물론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는 구원이 마치 막대기에 매달린 당근과 같아서, 충분히 선하게 산 물론 신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선해야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거짓 교사들은 결코 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추측과 노

력 속에 방치하며, 천국 입장을 얻기 위해 애쓰게 만든다. 사탄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도록 속이는데, 이는 행위 중심의 의식이 사람들이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마이크 와일더는 한때 물론교의 대제사장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조직을 떠났다. 그는 물론교인으로 30년을 지내는 동안, 예수의 피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도덕성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에 의지하고 있는가? 찰스 스피넬(1834 - 1892)은 이렇게 말했다. “도덕성은 당신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물론 마이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마이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 2:17).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선한 행위를 낳기 때문이다. 믿음의 열매가 실제인 이유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가 실제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한복음 15:5). 살아 있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에베소서 2:5)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을 드러내는 증거다.

구원은 예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이 너무 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한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에게”(빌립보서 1:1) 편지를 쓰고 있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 것이 된다.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곧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며 속량되고 용서받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 이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몸을 단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빌립보서 3:9)를 상기시킨다. 그는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 의를 철저히 설명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로마서 3:22).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로마서 3:26).

만일 당신이 자신의 행위로 영혼을 구원받으려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사도행전 20:28) 십자가에 의지하시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죄 사함을 받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붙들어야 할 길이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8: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리솔)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연일예배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진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증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리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어노인팅교회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가 새해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를 1월 9일(금)부터 2개 강좌로 확대해 개최한다.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좌를 지역교회에서 실시해 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미리 돌아보고 예방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지난 강좌 참석자는 “보통 정신건강 하면 ‘나는 아니야’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는데 교회에서 주최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다. 정명화 강사가 좋은 내용, 필요한 내용을 쏙쏙 알아듣게 전달해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경험이나 문제를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어노인팅교회 신경섭 목사는 “지난해 시범 강좌 때 반응이 좋아 올해는 시니어/중년 2개반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우울증/불안/기억력 쇠퇴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와, 저장강박, 스킴 사기/할러데이 블루

왼쪽에서 첫번째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정명화 프로모터. © 어노인팅교회

와 같은 실생활과 연결되는 주제를 다루었다. 정신건강국에서 이외에도 많은 주제가 있어서 계속 실시하게 되었고, 참가자 연령대도 나누어 실시한다. 시니어 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 중년 반은 수면,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 전반적인 내용을 접하게 된다. 교회 단위로 모임이면 구성이 편리해서 ‘지역교회와 함께 하는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로 지역의 다른 교회에도 추천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교회가 시범으로 좋은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1월에는 매월 첫째 주, 6월까지 모임다. 정신건강 주제를 부담없이 나

누고 배울 수 있는 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초대말을 전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 강좌’는 예방을 목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강좌로 최소 5명 이상 구성되면, 해당 단체의 공식 장소와 시간을 의논해서 지정하고, 프로모터가 출강하는 형식의 대면 모임도 비대면 Zoom 모임이 있다.

단, 자료 준비를 위해 전화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전화 224-622-9183, 이메일은 mcc3694@yahoo.com,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최승연 기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원장 리디아 전 박사)는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사회의 전인 건강(마음·관계·영성)을 높이기 위한 교회-커뮤니티 아웃리치 회복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블레싱교회(담임 피세원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 성도는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전인 치유 세미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신앙이 있으나 마음의 힘이 필요한 분, 관계와 내면을 돌아보고 싶은 분, 지역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다.

세미나는 임상심리학 박사인 리디아 전 박사(ICF PCC 전문코치)와 조셉 전 박사가 함께하는 4주간의 따뜻하고 안전한 회복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며, 장소는 더블레싱교회(애나하임)이다. 일정과 각 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20(화) 주제: 나의 과거는 진짜 과거인가?
1/27(화) 주제: 나는 타인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2/3(화) 주제: 나는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2/10(화) 주제1: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인치유, 주제 2: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 발견하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글 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SIF2c2azq5JojFIFzReLJkk5mtkizFwKk_-mEaSxlarvIA/viewform)으로 신청하면 되며,

GIFT 전인코칭 전문학교

찾아오는 서비스 / 회복 파트너 프로그램 1호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지역, 개인, 이웃, 친구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전인코치와 함께하는 4주간의 치유 여정에 초대합니다.”

일정: 2026년 1월 20일 - 2월 10일 매주 화요일 4주간
시간: 오후 7시 - 9시
장소: 더블레싱교회 (소매점) / 안양시 (지역교회) / 주주소: 1500 N. Dale, Anaheim, CA 92801
문의: Dr. Lydia & Dr. Joseph Chun
치료: 자기-관계의 탐구와 회복, 타인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다행히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949-626-1558

GIFT 치유와 회복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란?

본 프로그램은 전인(신체, 감정, 마음, 영성)의 건강을 위한 치유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을 위한 치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교회와 함께 지역 사회의 전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교회-커뮤니티 아웃리치 회복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Day 1 - 1/20
• 주제: 나의 과거는 진짜 과거인가?
• 강사: Dr. Lydia Chun
• 강사: Dr. Joseph Chun

Day 2 - 1/27
• 주제: 나는 타인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 강사: Dr. Lydia Chun
• 강사: Dr. Joseph Chun

Day 3 - 2/3
• 주제: 나는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 강사: Dr. Lydia Chun
• 강사: Dr. Joseph Chun

Day 4 - 2/10
• 주제: 성경적 관점에서 본 전인치유, 주제 2: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 발견하기
• 강사: Dr. Lydia Chun
• 강사: Dr. Joseph Chun

온라인 강사

Dr. Lydia Chun (ICF PCC Professional Coach)
Dr. Joseph Chun (ICF PCC Professional Coach)

문의는 GIFT전인코칭 전문학교 1기생 최혜라 담당자 (949-331-0067)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림학춘목사 은퇴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하여 28년동안 목회해 온 림학춘 목사가 지난 11월 30일 돌연 은퇴했다.

림 목사는 수개월전 악화된 뇌종양으로 인해 은퇴 예배에서도 은퇴

사를 전하는 대신 성도들에게 겨우 큰 절을 하는 것으로 은퇴인사를 대신했다.

건강이 악화된 림 목사의 이 같은 결정에 성도들은 애석해 했으며, 은퇴하는 림 목사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림 목사 은퇴예배에서는 이은철 원로목사가 설교했고, 감리사는 “지난해 같은 지방에서 은퇴한 박용삼 목사를 내년 6월까지 임시목사로 파송한다”고 발표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작고 조용한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큰 기대를 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한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낳습니다. 저 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은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모든 위대하고 거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 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소중한 지혜를 소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순식간에 경 험하길 원합니다. 거대한 도약을 꿈꾸며 살 아갑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변화와 거대한 도약은 작은 노력과 작은 순종이 차곡차곡 쌓일 때 이루어집니 다.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 유는 조금함 때문입니다. 서두르기 때문입니 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마침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 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 다. 큰 걸음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발걸음입 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순종보다 작은 순종 이 지속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 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 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 12:5). 아브라함이 갈 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작은 순종이었습니 다.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이 반복되고 지속되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를 기뻐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 하는 자가 누구냐”(속 4:10상). 또한 적은 일 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 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 게 맡기리니”(마 25:21).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 다. 작은 씨앗 속에 담긴 거대한 나무와 숲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은 기본 에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기본기를 잘 다

진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립니다. 탁 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했습니 다.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날마다 본질을 붙들고,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 갑니다. 하루아침에 큰일을 이루지 못해도 작은 일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방 향을 바꾸는 작은 걸음입니다. 하루하루 쌓인 작은 순종이 아름다운 성품을 빚고, 건강하 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가장 놀라운 힘은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찬양을 드리십 시오.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한 번 더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한 번 더 만나는 사람을 축 복해 주십시오.

둘째, 조용한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조용함은 고요 함을 낳고, 고요함은 깊이를 만듭니다. 조용 한 순종은 은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생명 은 늘 은밀하고 조용하게 자랍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싹이 트고 자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 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 솟아나게 하시리라”(사 61:11). “움돋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새순이나 싹이 힘차게 밀 고 올라오는 모습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 과 생명의 회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싹이 트는 것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 다. 식물의 생명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 다. 생명은 약동하는 힘입니다. 생명은 성장

합니다. 생명은 솟구쳐 오릅니다. 생명은 뻗 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순종보다 조용 한 순종을 통해 더 깊이 일하십니다. 조용한 순종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 종입니다. 박수와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순 종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람들 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과 인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유일 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 님의 조용한 칭찬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 서 조용한 순종은 성숙한 순종입니다.

작고 조용한 순종이 오래갑니다. 요란한 순종은 빠르지만 쉽게 지칩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지속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조용 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감정과 의지를 넘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 용한 순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그 사명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요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비난과 제자들 의 배신 가운데서도 조용히 순종의 길을 걸 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작고 조용한 순종의 길을 걸으 십시오. 즉각적인 보상과 거대한 도약을 내 려놓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놀라운 하 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 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복을 이웃과 함 께 나누십시오.

진유철 칼럼

너는 복이 될지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창세기 12장은 구원역사의 터닝 포인트 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인간의 행위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구원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4:3) 이렇게 중요 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에 반드시 바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

른 믿음은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 아 브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을 찾아와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 에 갈등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도 나중에 열어보면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그릇처럼 됩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 자기가 원하거나 생각한 것이나 자기 가 경험한 것으로 믿음의 틀을 짜고 거거 에 맞추어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 불교나 이슬람과 다를 바 없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바른 믿음은 창세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말씀으 로 시작해야 합니다. 상상력이나 내 희망 과 열정은 바른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성령님의 모든 역사도 말씀과 함 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서 복과 저주의 구분은 하나님이 있고 없 고 입니다. 저주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 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피하고 떠남으로 생겼습니다.

반대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 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을 약속으로 내가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 기 위해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 는 복이 될지라”(창12:2)는 말씀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의 말씀임이 불분명 믿어졌습니다. 이 말 씀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으 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 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 을 우리도 위함이니”(롬4:23-24)라고 말 씀합니다.

내가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붙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하나님의 역사는 1/n이 아니라 바 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와 선교지에 복이 흘러넘치는 2026년이 되기를 기도드 립니다. 샬롬!!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안심

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40 Shatto Pl, #301., Los Angeles, CA 900200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성경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새라 김 칼럼

캘리포니아, 진리를 수호하는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들 법정 승리거두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수년간 주정부 의원들이 트랜스젠더 비밀 유지 정책들을 추진해 온 가운데, 최근 판결에서 그런 정책들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법적 비판을 가했습니다.

미라벨리 대 올슨 (Mirabelli v. Olson) 사건에서 로저 T. 베니테즈(Roger T. Benitez)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주정부의 소위 '학부모 배제 정책-Parental Exclusion Policies'이 위헌이며 '영구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정책은 학교 관계자들이 미성년 학생의 성 정체성 또는 '사회적 전환'을 학부모에게 숨기도록 의무화 하는것을 합법화 시켜준 정책입니다.

주 교육부 및 의원들의 비밀 유지 정책이란?
수년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를 비롯한 주정부 의원들은 학교가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저지 단체 TVNEXT와 동역 단체들이 반대해 온 수많은 악법을 의무화하고 실행해 왔

습니다. 법무장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주 정부는 성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포괄적인 개인의 "권리" 의무화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Rob Bonta 를 비롯한 그 행정부가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여러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본인을 LG-BTQ+로 ‘공개’할 권리가 없다.”

이 성명은 모든 학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효되어 비밀 유지 정책과 교육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그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 따라 부모의 기본적 권리나 교사에게 부여된 보호를 헌법적으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미라벨리 대 올슨’ 사건 소송 과정: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인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와 로리 웨스트가 제기한 소송으로, 두 사람은 소속 교육구(에스콘디

도 연합 교육구)의 정책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성별 정체성이나 대명사를 채택했을 때 학부모에게 이를 숨겨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법적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로리는 모두 수십 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노련한 교육자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정직함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믿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해당 학군의 '학부모 배제 정책' 통보를 받고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측의 강요는, 그들의 신앙과 윤리를 저버리고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정부에 순종하지 않은 엄청난 댓가(벌칙, 벌금, 해고 등등)를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두 교사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저희 단체와도 오랜 동역을 해오고 있는 토마스 모어 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점: 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성별 비밀 유지 제도가 다음의 기본 권리들을 침해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교사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실천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

가족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핵심 헌법 원칙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와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정리: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극적인 정책 전환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교육구의 비밀 유지 정책은 더 이상 시행될 수 없다. 공립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성별 불일치를 표현할 경우, 학부모 및 보호자는 연방 헌법상 해당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는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불일치를 표현하거나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질 경우 학부모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학교가 그러한 정보를 “은폐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민중기 칼럼

[신년 메시지]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해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올해 마지막 토요일, 늘 다니던 동네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질하시던 집사님은 그동안 짓물러 아팠던 손바닥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 회복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 고무장갑을 끼고 이발하시던 집사님의 얇던 손바닥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수의 성도가 고통스러운 것은 숨기다가 치료된 후에 아픔을 고백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묵회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게 됩니다.

종종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이웃이 돕기에 힘든 일이라해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2026년 병오년을 여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집을 지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지난 2025년의 고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자의 다수가 깊은 고통, 강력한 스트레스, 병마와 육신

의 연약함, 해결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신을 하는 가정과 사업을 가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축과 담습 같은 고초와 재난이 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확언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히 무궁”하시고 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 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에 3:22-23). 예수님도 제자들이 당한 풍 파를 잠재우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6:20) 말씀하십니다.

청년 다투어도 헤서처럼 역사에 등장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인에게 버림받고 추적당하며,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고, 결국 타국의 왕에게 몸을 의지하려다가 미친 척하고, 국외에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었다가 찾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과 백성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생과 절박한 위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곧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 68:19).

우리의 집을 지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
다(시 68:5). 그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회복
시켜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끄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 곧 사회적 약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68:6).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업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족한 비를 보내사 우리의 기업이 곤란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회중을 그 나라 가운
 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68:9-10).

더 나아가 우리의 집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바산의 높은 봉우리들이 시온산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의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68:15-17). 바산(Bashan)은 지금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곳은 아나 자손과 유사한 네피림으로 여겨지는 르바임(Rephaim) 거인, 바산 왕 옥(Og)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군사적 영역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계시가 보여준 “우리 집을 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2026년은 아무리 ‘고난의 적토마’가 무섭게 달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곁을 잡으시고 평안의 안식처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올해도 우리와 땅을 같이 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리켜 담장을 넘게 하십니다.

이 비상한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상상력”(spiritual imagination)을 우리의 심령에 장착해야 합니다. 영적 상상력은 어두운 현실에 매이지 않고 흑암의 구름을 뚫고 비상하게 만드는 영혼의

엔진입니다. 그 엔진은 죄와 낙심의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영적 궤도에 올려놓는 믿음의 실제적 사용입니다. 다윗이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을 누리고, 비열한 인간 군상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장애물을 날마다 극복하며 전진합니다.

둘째, 병오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발상”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동서양 의학을 동시에 공부한 의사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플러스 발상”을 제안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이 ‘베타-엔돌핀’이라는 강한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여, 영육의 건강을 유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026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love bridge)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짐을 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전달하여, 사랑의 파이프라인, 곧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출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치유의 말과 함께, 작은 도움과 정성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2026년 우리 시간의 삼자를 사랑의 열매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일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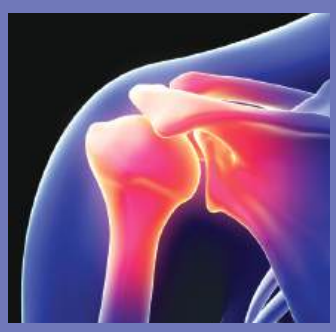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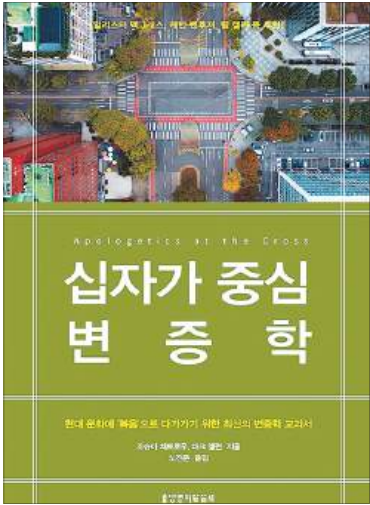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변증은 학문 아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변증 종합 선물세트 ‘십자가 중심 변증’의 4가지 특징



십자가 중심 변증학

조슈아 채트로우 · 마크 앨런
| 노진준 역 | 생명의말씀사 |
472쪽 | 30,000원

이 책은 한국 교회에서
전문가만의 활동으로 여지는
변증에 대한 합당한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성경에서 발견되는 변증 모델
들을 살피고 변증학이 역사적
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적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변증
의 기초를 한 권에 통합하고
정리하고 해석한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와 반감이 커지는
이 시대, 결국 변증이
핵심이다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거나 기독교로 개종을 권하기 위한 설득과 논증에 큰 유익을 주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증학이라는 통로를 지나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다.

사실상 변증학에서 학문의 성격을 벗기면 변증이 남게 되는데, 기독교는 십중팔구 변증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뛰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로 변질된 유대교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가 담긴 새로운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고전 9:22)”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했다. 기독교 교리는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파고들어 마음에 심기는 메시지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변증의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변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TGC에 의해 ‘변증학 및 전도 분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십자가 중심 변증학〉의 공동 저자 조슈아 채트로우(Joshua Chatraw)와 마크 앨런(Mark Allen)은, 그동안 변증학 서적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장점을 하나로 통합한 훌륭한 입문서를 썼다. 채트로우는 비스 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과 전도를 가르치는 실력 있는 젊은 학자이고, 앨런은 롤링스 신학대학원에서 변증학과 문화 참여 분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다. 두 사람이 쓴 책은 팀 켈러, 알리스터 맥그래스, 케빈 벤후저, 대릴 복 등의 추천을 받았는데, 특별히 켈러는 “저자들은 변증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존중하며 소개하고, 여러 학문과 사상가의 통찰을 통합한 자신만의 길을 제안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6쪽)”라고 평가했다.

변증학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아마도 고전적 변증, 증거주의 변증, 전제주의 변증, 경험적 변증의 개념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변증학 서적은 저자가 추구하는 방식을 칭송하면서 나머지를 비평적으로 다루는 편인데, 채트로우와 앨런이 쓴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변증의 특징을 다루면서(1-2장), 동시에 역사적으로 기독교 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한다(3-4장). 그리고 비교적 현대의 변증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5장). 이 책은 그 중 어느 하나의 변증 방법을 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통합해 가장 이상적이면서 성경이 묘사하는 변증의 특성을 갖춘 ‘십자가 중심 변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 이른다(6-9장). 십자가 중심 변증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말과 행동을 통해 십자가로 인도하기 ②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닮은 겸손 ③복음을 위한 전인적인 호소 ④십자가 렌즈를 통한 상황화(194쪽). 독자는 이 부분에서 채트로우와 앨런이 제시하는 변증 방법이 단순히 학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책의 부제는 ‘현대 문화에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한 최신의 변증학 교과서(An Introduction for Christian Witness)’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이뤄지고,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말과 행동 즉 인격으로 다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교리와 세계관을 가지고 누군가의 지성과 세계관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들 영혼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진실로 찾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복음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채트로우와 앨런은 마지막 10-13장에서 후기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기독교를 향한 여러 비판에 어떻게 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헤리트 클라스존 블레커르(Gerrit Claesz Bleker, 1593 -1656)의 ‘빌립이 무어인에게 세례를 주다(Philip Baptizes the Moor, 164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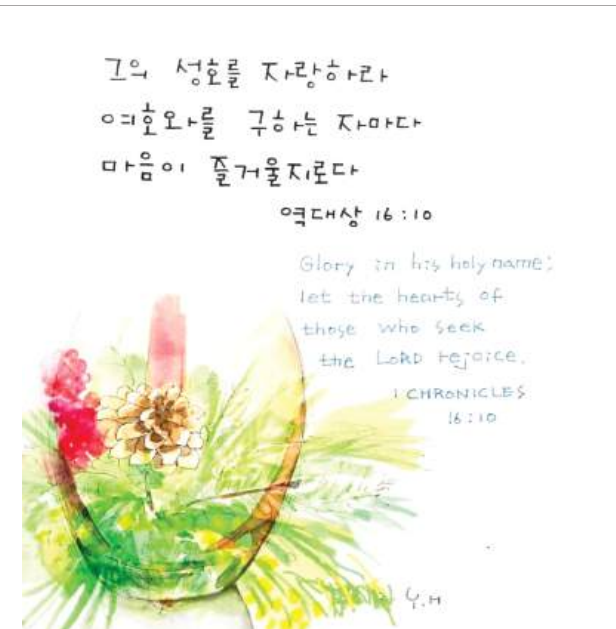
손히 대답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 보통은 증거주의 혹은 전제주의로 변증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전인적으로 호소하셨는지, 청중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려하며 다가갔는지 생각해 볼 때, 이 책이 제시하는 십자가 중심 변증 방법이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변증법을 고집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 사

람에게 여러 모습이 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십자가 앞에서의 변증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 그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각 민족과 나라, 문화와 배경, 나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세계관에 맞춰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가 해왔던 변증이고, 〈십자가 중심 변증학〉은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성경적 특성을 갖춘 변증의 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해 주는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la.edu

‘악뮤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 다들 교육 비결 묻지만, ‘내 교육’은 실패했다

이랜드미션 연합예배 초청 강연서 ‘하나님 경외’ 강조

이랜드 신우회에서 준비한 이랜드미션 연합예배가 1월 5일 오후 개최된 가운데, 초청강사인 이성근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이찬혁·이수현 남매의 ‘악뮤(악동뮤지션)’를 키워낸 자녀교육 비결에 대해 강의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2008년 5월 몽골 선교사로 나갔다가 2012년 11월 18일 K팝스타 시즌2 첫 방송이 나왔고, 2013년 4월 14일 악동뮤지션이 우승했다. 그때 아이들이 각각 고1과 중1이었다”며 “금방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K팝스타 우승 후, 자녀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몽골의 푸른 초원인지, 부모의 독특한 홈스쿨링 교육 때문인지 묻는 것이었다”며 “아이들이 유명해진 후 홈스쿨링협회에서 강의해 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사실 홈스쿨링에 실패했기에 나눌 내용이 없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책도 썼지만, 책에 쓰지 못한 진짜 신앙 이야기를 해드리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선교사는 “처음엔 당연히 현지 MK스쿨로 아이들을 보냈지만, 1년도 안 돼 재정적 압박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게 됐다. 1년만 집에서 공부하면 다시 학교로 보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후 학교를 보내지 못했다. 제게는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홈스쿨링 첫날부터, 재정 어려움이 해결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고,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쌓여갔다”며 “찬혁이는 중2가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다. 저는 아



▲이성근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들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그치고 혼내기만 했다. 가족간 불화와 긴장이 가득해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성근 선교사는 “홈스쿨링 3년째, 아내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했다.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지만, 1박 2일간 가족수련회를 다녀왔다”며 “새로운 곳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요한복음 2장 1-12절 말씀을 주셨다. 제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했고, 이후 2-3개월간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기도했음에도, 홈스쿨링이 계속되면서 2년차에는 불안이, 3년차에는 분노와 원망이 찾아왔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기도했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선교사였기에,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편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나의 의의 편이더라. 원하

는 대로 되지 않자 제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 했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났다”며 “부모의 과도한 책임감은 이처럼 자신과 가족,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고, 깨닫게 하신 교훈을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도 찬혁이의 사춘기 때문도 아닌 전적으로 제 문제였다고 고백했더니, 가족들은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사랑해 주더라”며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전까지는 마음이 지옥 같았기 때문이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친밀해야 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인간으로서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과 갈등 관계였으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았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이 순간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그때부터 여전히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됐고, 가정예배는 축제로 바뀌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됐다”며 “그때 하나님께 저희 가정과 아이들을 맡겨 드리겠다고 기도드렸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들의 교사가 돼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십니까?’라고 여쭙봤다. 이 질문에 알려주신 2가지 교훈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경외’이다. 그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시작된다고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외를 설명해줘야 할까 고민했다. 떠오른 기억은 처음 찬혁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경외와 닮았음을 깨닫게 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두 번째 기억은 어느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면서 찾아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던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과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더 괴로웠을 것”이라며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다. 이를 통해 저희 가정은 모두 경외를 배우는 학생들이 됐다.”

그는 “이후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을 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 죽지 않으려 예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훈련의 장이 됐다”며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졌지만, 지금도 매일 한 번씩 모여 드리는

가정예배를 최우선하고 있다. 그날은 일찌감치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2시간 넘게 예배드린다”고 소개했다.

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성경 묵상과 나눔이다. 이미 성인이 되고 머리가 굳어진 아이들을 제 말과 힘으로는 설득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있다”며 “매달 가정예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가족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는 구체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전제했다.

이성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허락하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고 계발되며 사용되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교육의 내용’”이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재능과 은사로 나눠주셨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인 저희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바가 있다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이 2가지 교훈을 통해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됐다. 첫 번째 교훈을 적용한다면, 3년 동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된 것”이라며 “두 번째 교훈을 통해, 홈스쿨링에 진짜 관심을 갖고 조언을 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다. 홈스쿨링 3년의 좌절 후 1년 동안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놀라고 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1년 공부 후 자신감이 생겨, 다시 홈스쿨링을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2011년 몽골 한 인교회에 갔다가 고3 친구가 ‘아이 팻’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제공
[다음호에 계속]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밥술,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집에 있는 캐시는 이렇게 불러 보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62세입니다. 남편과 스와맛에서 신발가게를 오랫동안 하고 드디어 두 달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70세인데 고생 많이 했죠.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잘 살고 있고 특별히 걱정은 안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보니까 큰 재산은 없는데 저희가 집에 개위로 한 30만불이 있더라구요. 우리 아버지께는 저에게 그냥 그 돈 집에 놔뒀다가 우리가 조금씩 쓰고 나중에 애들에게 물려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고 우리가 언제 30만불이나 모았을 까, 왜 은행에 조금씩 넣지 않았을 까 이게 돈이 있어도 후회가 됩니다. 저희는 뭐 남들처럼 생명보험이나 은퇴 플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이 좀 있고요, 매달 남편 소셜도 나오지만 작은 집에서 월세로 \$2500씩이 또 나와서 남편과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페이먼트가 없고 차 값도 다 페이했고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 30만불이 이자도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가 아깝고 그리고 도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나 이제서야 걱정이 됩니다. 문선영 선생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

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런 30만불이 캐시,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지 않은 이 종이 돈으로 30만불이 집에 있다는 거죠. 흠... 이 돈이 아쉬운 이유는 이자를

받지 못해서 정말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30만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으면 아들이 이 돈을 찾겠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집안에 있는 캐시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청소부나 매니저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들이 돈을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또 언제 도둑이 들까, 집안에 불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 캐시로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걱정이지요. 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지 한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생명보험이냐 은퇴 플랜 같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두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30만불을 은행에 가져 가서서 디파짓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0만불은 large amount 라고 해서 만불이 넘기 때문에 은행은 FORM 8300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또 10만달러 이상이니가 Form 3520이라는 양식을 작성

해서 IRA에 보고, 내가 그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모은 돈이다 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런 IRA에 보고하는 것은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목적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거래의 돈 세탁이나 마약, 범죄, 테러에 쓰일 것 같은 돈을 추적하기 위한 방편이지 30만불 정도의 돈에 벌금을 물기 위하거나 세금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30만불을 은행에 넣고 어뉴이티 플랜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 선생님이 72세에는 이 30만불은 거의 두배 60만불로 자라고, 다시 10년 82세가 되시면 120만불 가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돈을 넣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씩 넣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번째 방법, 재정플랜으로 생명보험 하나 50만불 짜리를 셋업해서 거기에 한달에 천불씩을 은행을 통해서 납부합니다. 이 계획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UNMONEYTALK@GMAIL.COM

한달에 천불씩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천불만 내더라도 당장에 사망하시면 50만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암 심장 신장 말기 뇌졸중, 릉통케어 상황이 되더라도 단 돈 천불만 냈다 하더라도 리빙 베네팅 사망 보상금 50만불에서 40만불까지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천불씩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천불만 내더라도 당장에 사망하시면 50만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암 심장 신장 말기 뇌졸중, 릉통케어 상황이 되더라도 단 돈 천불만 냈다 하더라도 리빙 베네팅 사망 보상금 50만불에서 40만불까지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돈은 24만불인데, 사망하시면 당연히 50만불이고요, 그때 취소하더라도 \$304,720을 만 내더라도 당장에 사망하시면 50만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암 심장 신장 말기 뇌졸중, 릉통케어 상황이 되더라도 단 돈 천불만 냈다 하더라도 리빙 베네팅 사망 보상금 50만불에서 40만불까지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돈은 24만불인데, 사망하시면 당연히 50만불이고요, 그때 취소하더라도 \$304,720을 만 내더라도 당장에 사망하시면 50만불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죠. 게다가 내가 암 심장 신장 말기 뇌졸중, 릉통케어 상황이 되더라도 단 돈 천불만 냈다 하더라도 리빙 베네팅 사망 보상금 50만불에서 40만불까지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50만불의 생명보험은 부담 없는 해결책에 당장 50만불 짜리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지요. 그것도 다운페이 없이 그냥 천불로 말이지요. 또 20년 동안 유지하시다가 20년 지나서 82세가 되시면 총

당장에 50만불의 생명보험은 부담 없는 해결책에 당장 50만불 짜리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지요. 그것도 다운페이 없이 그냥 천불로 말이지요. 또 20년 동안 유지하시다가 20년 지나서 82세가 되시면 총

Finance & Marketing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연합과 섬김, 위로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위브리지 컨퍼런스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

2026년 1월 26일(월) - 27일(화)

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 최승민 목사)
(200 Flower Mound Rd, Flower Mound, TX 75028)

컨퍼런스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교회 담임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경도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지역목사
목회코칭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목회의
유리천장깨기



손해도 목사
달라스 코너스톤 교회 담임
자기인식의 전환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허양희 사모
어스틴주님의 교회
사모의 영성



다니엘 박 선교사
순회 선교사
목회자,
남편과 아버지로 다시 서다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복음주의 운동과
건강한 교회



문선영 대표
WISE CALIFORNIA 대표
건강한 목회를 위한
재정의 지혜

개회예배



홍장표 목사
달라스 수정교회

폐회예배



이윤영 목사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

특별집회 (저녁/아침)



이성철 목사
GMC 한미연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특별집회



최승민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We Bridge 달라스 컨퍼런스는
목회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회복과 동행의 길을 모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달라스 지역의 목회자 · 사모 · 선교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



- ① 등록마감 2026년 1월 19일(월)까지
- ② 등록비 무료
- ③ 문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 ④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온라인 등록